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월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4월호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 ▶ 글로벌 팬데믹으로부터 엔데믹 일상으로의 회복은 힘든 여정이며, 글로벌 권역간 회복과정은 고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유는 인플레이션 등이 주요 요인임
- ▶ 이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이슈의 해결을 위해 데이터의 홍수속에서 넘쳐나는 업무와 관련한 경제 데이터를 선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졌음
- ▶ 이사회 인플레이션 압력(또는 기타 경제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업의 사업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제전문가의 브리핑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던지 다양한 시나리오 수립을 통한 일련의 준비작업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다운로드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US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How governance and strategy in a changing environment work

QR 코드



<표1>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하의 이사회 논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문항

- 이사회는 내외부 경제전문가의 정기 브리핑 참석을 제도화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합니까?
- 장단기적 차원에서 기업의 업종이나 사업 분야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시 경제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각 시나리오의 신뢰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이 이사회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전략 변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 경제적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이사회 스텐어드십을 확대하여 경쟁 우위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Board Practice Quarterly 4월호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 이사회 인재 및 인적자본 감독

- 인재 및 인적자본과 관련한 주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사회도 해당 영역을 감독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고려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의 이사회는 전통적으로 경영진의 범위내에 속했던 인적자본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그들의 역할과 범위를 확장중임
- 기업거버넌스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인적자본 관리 및 감독실무가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주요 서베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대상: 글로벌 129개 기업의 고문변호사,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 및 이사회 사무국 인원
- 서베이 주요 결과

Q1. 귀사의 이사회에서 인재/인적자본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감독 책임의 주체는 어느 위원회인가?

- 응답기업의 75% 이상이 보상위원회 (또는 유사 위원회)에서 1차적 감독 책임을 담당 중임

Q2. 과거 5년간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인재/인적자본 감독 기능이 추가되거나 확대된 적이 있는가?

- 응답기업의 70%는 과거 5년간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에서 인재/인적자본 감독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확대함

Q3.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지난 5년 이내에 인재/인적자본 감독의 범위를 추가 또는 확대한 경우, 관련 거버넌스 문서(예: 기업 거버넌스 지침, 위원회 헌장)는 더 넓은 범위가 반영되도록 업데이트되었나?

- 인재/인적자본 감독을 추가 또는 확대한 기업 중 85% 이상이 해당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거버넌스 문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보고함

Q4. 위원회가 5년 이내에 인재/인적자본 감독을 추가하거나 확대한 경우, 더 넓은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적이 있는가?

- 보상위원회 명칭을 수정하여 "인적 자원", "인적 자본", "문화",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다운로드

Deloitte.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이사회 인재 및 인적자본 감독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24 (수) 금융위원회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제정

- ▶ 지난 5월 24일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함*
 - * 정책 세미나(4.13), 제2차 ESG 금융 추진단 회의(4.27),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5.24)에서의 논의를 종합 반영하여 마련
- ▶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이하 '가이드스')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임
 -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임
 -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드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하며, 국내시장이 아직 발전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을 택함
- ▶ 가이드스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 총칙	• 동 가이드스의 목적과 적용 방식 등을 규율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 준법 감시인의 지정 등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체제 마련을 요구
3.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임직원이 남용하지 않도록 함
4. 평가체계의 공개	• ESG 평가방법론 및 기업별 ESG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를 공개 요구 • 정보공개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할 것을 요구
5. 이해상충의 관리	• 기관 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을 분리하고,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운영 •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도 부여
6.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 •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내용 등을 통보하고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를 규율

-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드스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드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할 것임
- ▶ 약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3~'24년간 가이드스를 운영한 이후, '25년부터는 가이드스의 역할·활용도 및 국제동향 등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05.23 (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

- ▶ 5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함
 -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
- ▶ 기관별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는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음 •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예정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역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 예정
2. 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보 중심의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동향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함 •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전포착을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예정
3.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D특별점검단(TF) 운영을 통해 CFD 관련 전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중임 • 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함
4. 최근 불공정 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 감소의 배경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가 있음 •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하여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함

다운로드



QR 코드



- ▶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22 (금) 금융감독원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 ▶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업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에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 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할 예정임
 - 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일시·장소	'23.6.1.(목) 14:00 ~ 17:00,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 4층)
주요내용	① 금융감독원의 XBRL 공시제도 추진 경과 ② 한국 XBRL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③ 미국·일본의 XBRL 도입 성공 사례 등
주요 참석자	금융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XBRL본부 사무총장, 국제 XBRL협회 CEO 및 Vice-Chair 등
신청방법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배너를 통해 참석 신청

- ▶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XBRL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해외 도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그간의 금융감독원 재무공시 선진화 주요 내용

내용
① '07년 세계 최초로 XBRL 재무제표 작성 도입 (일본 '08년, 미국 '09년, 유럽 '20년)
② '11년 IFRS 시행에 맞춰 IFRS 기반 Taxonomy로 변경
③ '20년 Open Dart를 통해 XBRL 재무정보 및 주요 비재무정보 전면 공개
④ 기업 편의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XBRL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23년 상반기 배포 예정, 미국 등은 상용 프로그램 구입 필요)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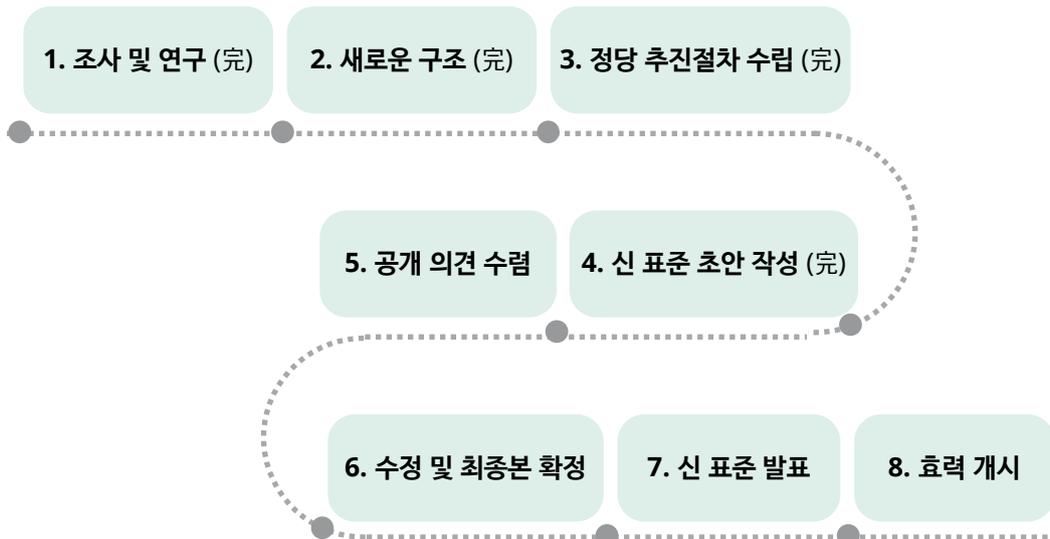
2023.5.22 (금) 한국감사협회

국제내부감사표준 개편 초안 공개 및 의견조사 기간 연장

- ▶ 세계내부감사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이하 'IIA')는 국제내부감사표준(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개편을 위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사를 실시중이며, 한국 내부감사인의 의견조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조사기간을 연장함(6월 26일까지)
- IIA는 지난 몇 년간 국제내부감사표준위원회(International Internal Audit Standards Board)의 내부감사 전문 체계와 표준 변경에 관하여 내부감사 분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공하고 진행과정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구분	내용
개정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PF 구조의 단순화 • 구성요소의 정렬과 명확화 • 시의성 증진과 새롭게 떠오르는 감사주제에 대응 • (규모, 산업, 성숙도에 관계없이) 실용성과 적용가능성 보장 • 내부감사,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 추진 일정



다운로드



초안



웨비나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19 (금) 한국ESG기준원

2023년 ESG 평가대상기업 안내

- ▶ 한국ESG기준원은 2023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금융사지배구조) 평가대상기업을 공개함
- ▶ 2023년도 평가대상기업은 2022년 대비 9사 늘어난 총 1,049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91사, 코스닥 상장사 196사, 비상장사(금융사) 62사로 구성됨
 - 환경·사회 평가는 상장사 987사(유가 791사, 코스닥 196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 지배구조 평가는 일반 상장사 932사(유가 745사, 코스닥 187사) 및 금융사 117사(상장 55사, 비상장 62사)를 대상으로 각각의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실시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표1> 2023년 ESG 평가대상기업

(단위: 사)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	계
일반 상장사	745	187	0	932
금융사	46	9	62	117
계	791	196	62	1,049

* 평가대상 연도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상장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기업, 상장 폐지된 기업,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2023년도 평가대상기업에서 제외

<표2> 2022년 ESG 평가대상기업

(단위: 사)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	계
일반 상장사	730	196	-	926
금융사	47	9	58	114
계	777	205	58	1,040

- ▶ 2023년도 ESG 평가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

구분	내용
평가 기간	• 4월 1주 ~ 9월 4주
환경 및 사회 피드백 일정	• 제출가이드 공개: 5월 19일 • 기업 피드백: [기본] 6월 12일 ~ 6월 30일 / [심화] 8월 14일 ~ 8월 25일
지배구조(금융사 포함) 피드백 일정	• 제출가이드 공개: 피드백 시 함께 공개 • 기업 피드백: [기본 1차] 6월 28일 ~ 7월 7일 / [기본 2차/심화] 7월 17일 ~ 7월 21일
최종 등급 발표	• 10월 2주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 11월 중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16 (화) 한국회계기준원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5월 11일, SASB 기준의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의 공개초안*을 발표함

* Methodology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and SASB Standards Taxonomy Updates

- ▶ 공개초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SASB 기준의 일부 지침은 다른 관할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관할권(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국제 적용 가능성을 개선할 필요성 존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공개초안의 적용범위는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 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에 한정** *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기후 외의 지표 ** 기후와 관련된 SASB 지표는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방법론을 제안(단계적으로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②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③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④ 국제적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는 삭제 ⑤ 본래 의도와 일치하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체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로 대체

다운로드



QR 코드



- ▶ 향후 일정

구분	내용
I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B는 정보요청서에 대해 올해 8월 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의견조회기간: 90일) • ISSB는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IFRS S1 시행일 전에 이와 관련된 SASB 개정을 완료하고자 함
한국 회계기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을 검토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의결을 거쳐 ISSB에 국내 의견을 전달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초안 주요내용 요약 공개(23.5월 중) ✓ 기업·투자자 등 국내 이해관계자, KSSB 자문위 등과 국내 의견 논의 (23년.5월~7월)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15 (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규정§6④* '23.5.2.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이하 '평가·보고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됨

<표1> 현 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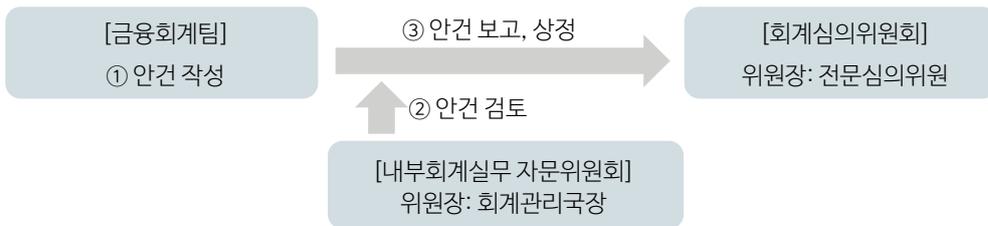
구분	설계 및 운영 관련	평가 및 보고 관련
원칙적 적용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자율적 지침	설계·운영 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사례	평가·보고 적용기법 (일반, 중소기업)

→ 규정화 대상

- 평가·보고지침 마련에 있어, 방대한 현 자율규정의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함
- 자문위는 ①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② 실무 적용이슈 자문, ③ 동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평가·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개정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심의기구(총 7명)

<그림1>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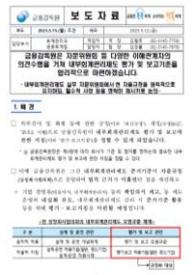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한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의 향후 일정

구분	내용
5월 12일(1차자문위)	• 자문위 운영방안 및 평가·보고지침 제정 방향 논의
6~7월(2·3차)	• 평가·보고지침 초안 마련 및 자문위 논의
8월(4차자문위)	• 평가·보고지침(안) 마련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9월	•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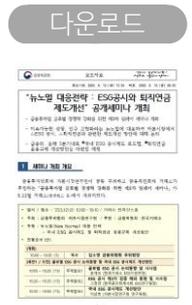
2023.5.12 (금) 금융위원회

'뉴노멀 대응전략: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 개최

- ▶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후원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가 5월 12일에 개최됨
 - '뉴노멀(New Normal)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성장,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ESG 공시, 퇴직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 본 세미나에서 '25년부터 도입되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하여, 금년 3분기 중에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 동 로드맵에는 ①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② 국내 ESG 공시기준, ③ 제3자 검증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임

구분	내용
①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서, 자산 1조원(27년), 자산 5천억원(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30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 •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 예정
② 국내 ESG 공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의 경우,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
③ 제3자 검증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 또한 마련해 나갈 예정

- ▶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내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함
 - 탈세계화·탈탄소화·인구구조 변화로 ESG 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ESG 공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① 공시 의무화 대상·일정 구체화, ② 국제정합성과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③ 공시시기의 명확화, ④ 제3자 검증과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 ▶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를 연속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8 (월) 금융위원회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 ▶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함
 - * 전문가 간담회(3.10), 정책세미나(3.27),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4.6)에서의 논의를 종합 반영하여 마련
- ▶ 기업 M&A 지원방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 •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해 하반기중 추가 규제개선 방안 발표
2.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구조조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M&A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의무공개매수제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 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함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globalization),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scale-up)를 위해 정책금융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우수기업 M&A를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투·융자 프로그램 및 자문·컨설팅을 제공 ✓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 M&A 전용펀드' 신설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 ✓ 경쟁력 약화 우려기업의 기존사업 매각 및 신사업 인수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취약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PEF 등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임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과 함께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 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 ✓ 현재 상장법인-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에 적용되는 제3자(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 의무와 관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규율을 마련 •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

다운로드



QR 코드



- ▶ 금융위원회는 M&A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2 (월)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및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 고시

-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의 후속조치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을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정비를 위해 관련 개정 규정을 고시함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23.5.2. 시행)

구분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제정하도록 별도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의무를 명확화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가중사유 단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함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수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가 부정행위의 주도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부과과징금 전액을 면제함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통보를 수사업무 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양정시 반영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소규모 회사의 외부감사인에 대해 내부회계위반 과태료의 50%를 감경함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어 비상장사와 유사한 내부회계 규제를 받게 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위반결과를 '경미'로 양정함
제재정보 공개 관련 규제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행위의 재발방지, 제재 투명성·공정성 제고,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과실 위반행위는 공시대상에 포함 등

- ▶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23.5.2. 시행)

구분	내용
건 별 포상한도 기준금액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10개→4개)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함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 및 단순화함
금융감독원장 조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포상 심의·의결 근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 심의·의결 대상에 금감원장 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화

다운로드



QR 코드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4.25 (화) 금융감독원

'23.3분기부터 의무화되는 비상장법인의 XBRL 재무제표(본문)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난 3월 발표된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23.3.31.)에 따라 IFRS를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은 '23년 3분기 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주석 제외)을 XBRL로 작성해야 함

*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 K-IFRS를 적용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은 XBRL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님

➢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XBRL에 익숙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XBRL 재무제표 작성 안내 및 실무 교육을 지속할 예정임

내용	
①	금융업종 비상장법인은 소속 금융협회를 통해 안내·교육
②	협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금융업종 비상장법인의 경우 '23.5.8.~5.10.(3일) 중 공시·회계 실무자 및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③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비상장법인을 위해 교육 영상을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과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 게시
④	헬프 데스크를 통해 1:1 교육 등 상시지원

- '23.3분기부터 XBRL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비상장법인에 관련 사실을 직접 안내하고 교육 참석을 독려하는 등 XBRL 재무공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유도할 것임
- 헬프 데스크를 통해 준비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작성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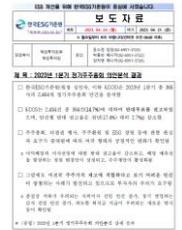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4.24 (월) 한국ESG기준원

2023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은 '23년 1분기 총 368사의 2,484개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함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주환원 및 ESG 경영 등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됨
 - 이익배당과 이사선임에 대한 반대 권고율이 감소하고, 배당 예측성을 향상하는 정권 변경안이 상정되고, 주주제안이 활성화됨
- ▶ 그럼에도 여전히 주주가치 제고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건이 상정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됨
- ▶ 주요분석 결과
 - 분석대상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총 2,48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임원 선임 안건이 1,239건(49.9%)으로 가장 많음
 - * 경영진 제안으로 한정
 - KCGS는 2,484건 중 364건(14.7%)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으며, 안건별 반대 권고율은 전년(17.4%) 대비 2.7%p 감소함
 - 반대 권고가 1건 이상인 기업도 전체 368사 중 220사(60.6%)로 전년(66.1%) 대비 5.5%p 감소함

다운로드



QR 코드



<표1> 2023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구분	전체	재무제표 이익배당	정관 변경	임원선임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수 한도	기타 비정기 상정 안건*
				이사회					감사기구						
				사내 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 이사	감사위원 이되는 사외이사	계	감사 위원	감사	계	계			
반대 권고수	364	36	35	18	3	60	10	91	35	16	51	142	118	1	32
상정 안건수	2,484	383	246	407	71	402	78	958	241	40	281	1,239	367	136	113
'23년 반대 권고율(%)	14.7	9.4	14.2	4.4	4.2	14.9	12.8	9.5	14.5	40.0	18.1	11.5	32.2	0.7	28.3
'22년 반대 권고율(%)	17.4	11.6	13.9	5.7	3.2	19.7	18.9	12.5	19.3	40.4	23.2	14.9	36.5	0.0	31.2
'21년 반대 권고율(%)	16.1	14.2	12.2	3.8	1.7	18.6	14.2	9.8	14.7	55.8	25.6	12.5	34.9	1.3	26.0

* 회사분할의 건, 임원퇴직금지규정 제·개정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주식분할의 건,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등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한국 딜로이트, 내달 4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조세일보]
-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스 발표... 정부참여 자율규제 [머니투데이]
-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선도기업' 150개 기업 선정 [한국일보]
- 무분별한 인프라 건설, 관리 부실...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시급 [엔지니어링데일리]
- 지배구조 안정화 기반에서 영업전략 갈렸다 [더벨]
- 대기업 사외이사 절반은 교수... 官·法 뒤이어 [지구인사이드]
- 공영 언론의 지배구조 위기: 그들을 왜 YTN을 노리는가 [슬로우뉴스]
-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내부통제 강화 방점... 이달 공개 [조선비즈]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 [법률신문]



이사회·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인적구성 다양성과 전문성 보완 필요 [조세일보]
- 같은 듯 다른 과점주주 체제 '이사회 안정성' 차이 [더벨]
- 주가 발목 잡는 지배구조... 이사회 중심 개선이 핵심 [CEO스코어데일리]
- 사외이사 과반 꾸준 삼성전기, ESG·성비 균형도 강화 [더벨]
- 대주주 추천만으로 이사회 구성... 미래에셋생명에 경영유의 [뉴시스]
- 주주제안·서한 접수부터 공시 의무화 추진... 행동주의 펀드 활동 폭 넓어진다 [조선비즈]
- 이사회 성별 다양성 규정 미준수, ESG 평가 영향은 [더벨]



한국 딜로이트 그룹

- 딜로이트안진 'ESG 공시·인증 연구 TF' 발족... "시장 선도할 것" [서울경제]
- 딜로이트 안진,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이투데이]
- 딜로이트 안진, 바이오 혁신벤처·투자자 연결 위한 '모닝피치 아시아' 개최 [테크월드뉴스]
- 딜로이트 컨설팅-BSI 코리아, '믿을 수 있는 AI' 컨설팅 및 인증서비스 제공...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시장 형성 가속화 [인공지능신문]
- 한국회계학회·한국경영학회, Chat GPT와 회계학 발전 방향 살필 세미나 개최 [세정일보]
- 딜로이트가 뽑은 유망 바이오벤처 키워드는 노인·출기세포·희귀질환 [조선비즈]
- 글로벌 MZ세대 절반 '생계비 허덕'... 부업 늘어 [동아일보]
- 금융 '공공성의 적'된 디지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와치]
- 자본시장 혼돈이 끝나지 않은 이유 [한국경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너댓 곳 불과했는데...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 '비적정' 상장사 39곳 [파이낸셜뉴스]
- 당국·회계업계 초미의 관심사 XBRL, 그게 뭔데? [파이낸셜뉴스]
- 금감원, 보험사에 CSM 과대계상 경고... '낙관적 가정 말라' [연합인포맥스]
- '뜨거운 감자' 감사인 지정제... 국회서도 '완화는 시기상조' [매일경제]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MBN·매경 '10억원대' 과징금 [한겨레]
- 민당정, 9월부터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 운영... 세액공제 연계 [뉴시스]



부정행위방지

- 新 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대상과 규모의 확대 [법률신문]
- 은행감독 '더 세계'... 현물 시재검사 부활, 검사후 이사회 면담 [뉴데일리경제]
- 거러소 'CFD 특별점검단 가동'... 추가 추가조작 세력 적발 착수 [시사저널]
- 칼 빼든 가상자산 규제... 신뢰 회복 최대 숙제 [메트로신문]
- '집 살 때 자기자본비율 30% 이상'... 갭투자 방지 입법 나선 국회 [뉴스핌]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한국세정신문]



규제 동향

- 한국공인회계사회, 핵심감사사항 도입 등 감사보고서 분석 심포지엄 개편 영향 개최 [세정일보]
- 2025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조선비즈]
- 기업 가치평가 '한국형 기준' 적용 확대된다 [내일신문]
- 복수의결권주식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 [법률신문]
- 내부통제 수술대 오른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앞두고 긴장감 [뉴스투데이]
- 감사인 지정대상대형비상장회사요건 완화등 외부감사법시행령개정안 공포 및 시행 [법률신문]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50억 → 100억 상향 [서울파이낸스]



M&A

- 연이은 금리 동결에 인수금융 7~8%서 안정화... M&A 본격화 조짐 [연합인포맥스]
- M&A 자금조달 쉬워진다... 삼성·SK·LG, 반도체 M&A 나올까 [뉴시스]
- 단숨에 기술력 도약... M&A 뛰어난 스타트업 [서울경제]
- 요동치는 보험사 M&A... 금융권 판도 변화 예고 [연합인포맥스]
- 제약바이오기업 성장전략 우선순위 'M&A' [의학신문]
- 주목받는 '디지털헬스케어'... 업계는 M&A로 재편중 [뉴스핌]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2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5월 30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분석 및 제언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2호(연 4회, 계간지)를 발간함
- ▶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2호에는 기업지배기구와 관련한 현안, 전문가 기고문과 함께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자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의 아젠다와 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및 실무 FAQ 등을 담음
- ▶ 전문가 기고 섹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김학범 파트너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시 고려사항"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는 "상장기업 선진 감독방안은 무엇인가?"를 기고함
- ▶ CCG 아젠다 섹션에서는 "FY2022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을 데이터 포인트 섹션에서는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내용을 담음

구독하기

QR 코드



구분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2호) 목차
I. 전문가 기고	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시 고려사항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김학범 파트너 ② 상장기업 선진 감독방안은 무엇인가?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II. CCG 아젠다	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IV. 주요 규제 동향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및 회계부정신고 제도 정비의 법제화 ②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V. FAQ	① 사외이사 겸직 ② 배당절차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년 제1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 일시: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07:30 ~ 10:00
- 장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22F)
- 대상: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
- 비용: 무료
- 참가신청: 1) QR코드 스캔 후 참가 신청서 작성 or 2)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문의: krccg@deloitte.com | 02-6676-2112

신청하기

QR 코드



※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님들을 우선적으로 선착순 접수받을 예정이며 접수 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

사회: 김학범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파트너

시간	내용	연사
7:10 ~ 7:30	참가자 등록	
7:30 ~ 8:00	조찬	
8:00 ~ 8:05	인사말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8:05 ~ 8:35	세션 1. 국내 환경을 고려한 이사회 의 ESG 감독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 ESG센터장
8:35 ~ 9:05	세션 2.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박재환 중앙대 교수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9:05 ~ 9:15	Break Time	
9:15 ~ 9:45	세션 3.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
9:45 ~ 9:55	Q&A	연사 3인
9:55 ~ 10:00	맺음말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겸 ESG 센터장이 ‘국내 환경을 고려한 이사회 의 ESG 감독’을 주제로 이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ESG관련 토픽과 ESG 감독을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을 살펴볼 예정임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환 중앙대 교수 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이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최근의 이슈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점검할 것임
- 마지막 세션은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ESG중 G(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임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웹 세미나] 감사위원회의 직면 이슈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6월 7일 (화)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nine Guillot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전 특별고문) • Tushar Morzaria (BP PLC, Legal&General PLC 비상임이사) • Theresa Taylor (CalPERS 이사회 회장) • Joe Ucuzoglu (Deloitte Global CEO)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루야 할 복잡하고 진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감사위원회는 최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기후 관련 정보 공개 표준이 ESG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함 •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새로운 문제를 처리하며 새로운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기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함

신청하기

QR 코드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웹 세미나] 보상위원회의 도전과제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6월 22일 (목)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 전문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위원회가 다룰 이슈들과 그에 따른 도전 과제들을 다루며, 이에 대한 보상위원회의 대처방안과 이해관계자와 이익 균형을 맞추는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상세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과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